

얼마 전, 마드리드 중심에 자리한 코디스 서원에서는 살바도르 다빗 신부님이 저술한 “어느 순교 가정의 알려지지 않은 편지, 마리아 데레사와 그녀의 딸들”(나랑하 출판사)이라는 작품의 출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

“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책은 피 흘려 증거한 순교자들의 서한입니다. 피로 쓰여 있습니다. 알헤메시 순교자들과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세라핀 수사의 편지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. 그는 투옥되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. ¹ 저는 이 글을 펜으로 써 나가면서 전을 없이는 전개할 수 없었습니다.” 책의 표지 양 날개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.

마지막 까지 충실했던 사람들

이 날 행사장에는 권두언을 쓴 마드리드 대교구 후안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카미노 주교님이 저자를 동행했습니다. 두 성직자들은 순교, 시복 사유, 그리고 작품 속 인물들의 개인사 등 다양한 테마를 다루었습니다.

사가 史家 하비에르 파레데스 (Javier Paredes)는 알헤메시의 다섯 명의 복자 순교자들은 모친과 그녀의 네 딸, 수녀들이었으며, 제2공화국과 내전 당시 좌파의 종교 박해로 인해 1936년 10월 25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함께 순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순교자들은 2001년 3월 11일 로마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성대히 시복되었습니다.

어느 순교 가정의 알려지지 않은 편지

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세 딸들은 부모님 집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. 그들에 앞서 큰 언니가 먼저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.²

1936년 10월 19일, 민병대가 이 가정을 급습하여 네 명의 수녀를 붙잡았습니다. 어머니는 딸들과 헤어지기를 거부했고, 그들 모두는 알헤메시의 폰스 살루티스 시토회 수도원에 수감되었습니다. 이 수도원은 감옥이 되었습니다.

¹ 모친 마리아 데레사와 누나 4명의 수도자들이 붙잡힌 곳은 스페인 동부 중심인 발렌시아 (Valencia) 지방이었고 카푸친 수도승인 막내 동생 세라핀은 스페인 동남부 지방인 무르시아(Murcia)주였다.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는 옥중에서 순교자들과 서로 주고받은 서신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.

² 1931년 좌파인 제2공화국이 들어서자 대대적인 종교 박해가 시작되어 수많은 수도원들과 성당들이 폐쇄되기에 이르렀다. 다섯 해 뒤에 스페인 내전이 터지면서 성직자 수도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피신해야 했다.

니다.³

그들이 수감되어 있던 일주일 간, 간수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스스로 성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.

그러다가 마침내 10월 25일 주일 밤,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었던 그 밤, 공산주의자들은 알시라 마을에서 불과 8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입구, 크룻 쿠비에르타⁴로 불리는 곳에서 그들을 실은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.



사형 집행자들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였고, 모친은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내 딸들아, 천상정배께 충실하고 이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!”

이에 격노한 민병대원들이 모친에게 달려가 총살하려던 찰라,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.

“내 딸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지 내 눈으로 지켜봐야겠소. 나를 쏘기 전에 먼저 딸들을 쏘시오. 그리고 나를 마지막에 죽이시오. 그러면 내가 편히 눈 감을 것이요.”

그리고 조용히 눈을 돌려 사랑하는 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딸들아, 이 지상의 고통은 금방 지나간단다. 그리고 천상의 영원한 행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.”

모친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 둘, 셋, 넷 모두 차례로 세상을 하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자 사형 집행인 하나가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.

“어이, 늙은이,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나?”

그 말에 노친은 이렇게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.

“내 한 평생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

³ 1931년 좌파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모든 수도원은 폐쇄되고 수도회와 교회의 재산은 강탈되었다.

⁴ 사진 참조

내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소. 난 결코 후회하지 않소. 당신네들이 내 딸들을 죽인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겠소. 나를 쏘시오. 내 딸들이 간 그곳에 나도 함께 갈 터이니.”

모친 역시 자신의 딸들과 똑같이 세상을 뜨면서 ‘그리스도 왕, 만세!’를 외쳤습니다.

사형 집행인이었던 한 민병대대원이 그 직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.

“정말 성녀였네!”